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오주승



'10억원이 생긴다면 감옥에서 10년을 썩어도 좋은가.' 무슨 영터리같은 제안이라고 타박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치 않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최근 우리나라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억원과 감옥살이 10년을 맞바꿀 용의가 있다고 답한 청소년이 조사 대상의 17.2%였다. 10명 중 2명 정도는 이 영터리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10억원이 주는 매력이 깊은 시절 10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참담함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가치흐름의 시대이다.

'투기공화국'에서의 생존법

일회용금을 할 수만 있다면 불법도 저지를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전도양양한 청소년들의 도덕관을 훔들고 있다. 점잖게 "정직하게 살아라"고 충고하다간 "너나 잘하세요"라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의 저류에는 '돈이면 죄고'라는 기성세대식 왜곡된 성공신화가 깔려 있다. 부동산 투기를 하든, 사기를 치든, 정부 돈을 빼먹 바로 이런 것이다.

부도덕한 사회의 공범들

의 경작확인서 한장만 있으면 정부가 돈을 준다는 데 이를 거부할 바보가 대한민국에 있을까. 더구나 8년동안 직불금을 받으면 농지를 팔았을 때 세금 한푼 물지 않는다는 데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겠는가.

직불금은 '부동산투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매력적인 제도다. 더구나 탈법과 합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수십만,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함께 포함돼 있으니 죄책감도 거의 없다. 집단 공범의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돈만 벌면 된다는 잘못된 논리가 미래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후유증은 예고됐었다. 요즘 한창 시끄러운 쌀소득보전 직불금제도를 말한다. 마을 이상

집 경작하는 농민은 40%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빠지게 농사를 짓어야 과실(직불금)은 지주에게 돌아갔다. 오히려 직불금이 과거 소작료를 대신하면서 전근대적인 지주-소작인 관계만 부각됐다.

만연된 부패 불감증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농어촌 관련 보조금과 지원금은 애초부터 순진한 농어민 차지가 아니었다. 한탕을 노리는 협잡꾼과 사기꾼, '지역유지자'를 차지하는 사이비 농어민과 업자들, 뇌물을 쟁기는 공무원들의 뜻이었다. 이들은 '나라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세상의 소문을 그대로 입증했다.

그렇다고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을 막아난 할 수 있을까. 부당 수령자가 수십 만명으로 추산된다면 이는 일종의 부패전염병 수준이다. 재수없이 걸렸을 뿐 죄의식도 없기 때문에 불감증 또한 심한 상태다.

이렇기 때문에 지도층의 도덕성은 중요하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정부 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추락했다. 소위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이란 비아냥을 들으면서 부패 척결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일대 혁신이 없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좋은 가을, 애꿎은 서민들의 속만 타들여가고 있다.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편칼럼

김병인



베이징 올림픽 동안 연예인 응원단이 2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흥청망청 쓰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질타가 높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예인 응원단은 연예인 21명에 공식 수행원 한 명씩 모두 4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4명까지 수 행원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고, 수행원에는 가족까지 있었다. 이들은 비즈니스 항공권을 이용하고 베이징 시내 5성급 호텔에서 열흘남짓 동안 숙박비로만 1억1천60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호화관 여행을 즐겼다고 한다.

또한 일부 연예인은 국고보조금으로 스파시설을 이용했고, 야구·농구 등의

예인들도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다.

당시 베이징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올림픽 기간 내내 베이징은 자국의 복잡한 사정으로 평소보다도 관광객이 적었다. 관광호텔 객실 판매율은 53.5%에 그쳤고 한국인 관광객 수도 전년에 비해 무려 58.9%나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호텔 예약이 어렵고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어려워 혈세를 낭비했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는가?

국민들은 어려운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연예인들은 10여 일 동안 겨우 8경기 응원하면서 2억여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도 반성할 줄 모른다면

문제는 광주천이다.

기고

박용수



서울하면 남산이나 한강이 떠오른다. 물론 63빌딩도 있고 북한산이나 도봉산도 있으며, 서울대공원도 있다. 한강하면 역으로 서울이 떠오르지만 도봉산이나 63빌딩만으로 서울을 끌어내기엔 다소 한계가 있다.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부산에는 낙동강, 대전에는 갑천, 울산은 태화강, 진주 남강, 청주는 무심천이 있다. 물론 광주에는 그보다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무등산이 있다. 무등산하면 광주를 떠올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광주천이란 이름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연상해 낼 수가 없다. 순자나 영자라는 이름에서 현대적 감각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까짓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름이 갖는 이미지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순한 고유명사적 지명에 불과한 광주

정도로 중요하다. 광주시 한 중앙을 관통하며 매일 140만 광주시민의 정신 속에 흐르기 때문이다.

무심천, 태화강, 섬진강... 이름만 들어도 넘실거리는 푸른 물결 속에 뛰노는 물고기가 연상된다.

하지만 광주천이란 이름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연상해 낼 수가 없다. 순자나 영자라는 이름에서 현대적 감각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까짓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름이 갖는 이미지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순한 고유명사적 지명에 불과한 광주

베이징 연예인 응원단 사과해야 한다

암표 구입에 800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령 박태환 선수와 유도왕기준 선수의 금메달 경기에는 표를 구하지 못해 음식점에서 TV를 보며 응원했다. 결국 본래 목적이 응원에도 충실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응원단장이었던 강병규 뿐만 아니라 문화부나 유인촌 장관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도 주인공인 유인촌 문화장관이나 강병규 단장은 '뭐가 잘못됐느냐'며 당당하다. 응원단에 참여했던 연예인은 물론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살펴보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올림픽같은 국가적인 대사에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는데는 국민과 연예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비록 취지는 좋았을 지라도 혈세를 낭비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 같은 기간 390여 명으로 구성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1억3천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베이징 외곽의 호텔을 이용하고 10여명의 문화·체육계 인사를 제외하고 모두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했다. 그러면서도 2천여만 원 정도를 남겨 정산서와 함께 문화부에 반납했다. 여러 면에서 연예인 응원단과 비교된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려면 용기が必要하다. 또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시간을 끌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먼저 명확한 진상을 밝히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바란다.

<서강정보대학 교수>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편상'을 수여 합니다. 은편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살펴보니,

ATM기기 앞에 '인출 현금 꼭 가져가자' 문구 부착해야

불생심으로 그 돈을 쟁기게 되면 절도죄로 전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창구에 설치된 CCTV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을 빼어버린 사람은 마음만 아프겠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절도 전과가 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했으면 한다.

은행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모든 ATM 기기마다 눈에 보이게 '인출된 현금을 반드시 가져 가시다'라는 안내문구를 붙였으면 하다. ▲오동은·광주시 동구 금동

천 이름을 개명했으면 한다.

광주는 고려 성종 15년에는 해양현, 충선왕 때는 화평부, 조선 세종 12년에는 무진군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해양강이나 화평강, 무진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는 충장공과 금남군의 명칭을 빌려 쓰거나 그것이 되레 에스컬레이터 시민들에게 공모하여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답양호, 장성호, 장흥호처럼 그곳에 있으니 이름에 호를 붙인 이름 따위보다 의미를 덧칠할 줄 아는 낭만이 그립다.

역사를 상기하거나 또한 전설을 연상하며 시심을 떠올리 수 있는 멋진 광주천의 이름은 없을까.

<수필가, 동신고 교사>

외국인 신부 고국과 화상채팅 가능케 'PC보내기 운동'

며칠 전 고향에서 만난 친구들이 출신 신부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 여성은 "시집은 지 3년이 넘었는데 한번도 고향에 가보질 못했어요. 고향의 가족들이 너무 그리워하는데 남편이 사준 컴퓨터로 매일 어머니와 화상 채팅을 해서 만나요. 너무 좋아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국 며느리가 된 외국인 신부들이 날로 늘고 있는 요즘 이들이 고향에 가고 싶어도 여리여리한 허리를 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있다. 물론 화상 채팅이 가능하도록 카메라를 붙여서 보내자는 것이다.

이런 운동을 벌여 외국인 신부들이 고국의 부모 형제 가족들과 영상을 통해 화상채팅을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조아·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시설

정부, 여수엑스포 지원대책 서둘러라

국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엊그제 전체회의를 갖고 세

계박람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

은 인지도가 낮은 여수의 현실상 접근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엑스포는 차지 '안방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 호남고속 철도와 여수공항 확장, 전라선 복선 전철화 등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민자유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자유치 목표는 4천750억원으로 세계박람회 전체 투자액의 30%에 이르고 있다. 아쿠아리움과 숙박시설, 해상 공연장 등이 주요 대상이지만 국내외 기업들이 수익성 등을 들어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민자유치 계획이 뿌리째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엑스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의원들의 주문에 '검토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등 원론적 수준의 답변에 그쳤다.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전남도와 여수시는 애가 탈 수밖에 없게 됐다.

정장관은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

에 대해 '2012년 완공은 어렵다'는 입장

을 보였다. 여수공항 확장과 관련, 의원들

은 '예비타당성이 낮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

지만 정장관은 '다시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지지부진한 민자유

치를 허용하는 각종 지원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협동 쌀 직불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많다. 경작자와 비경작자의 기준이 애매하고 경작인 개념까지 포함돼 있어 불법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 공무원들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도 이같은 제도적 혼�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조사다. 쌀 직불금 과정은 이미 공직사회 전반의 비리로 비화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단초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제공했다. 어울려 희생자는 없어야 하지만 제도의 혼을 암용해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부당하게 쟁진 공무원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최근 국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조작사건에서 드러나듯 심각하다. '제 식구 감싸기'와 불·탈법 묵인 등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쌀 직불금 과정은 공직사회의 신뢰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無等鼓

중국 한대를 지배한 정치사상은 황로학(黃老學)이었다. 황제와 노자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도가철학을 주축으로 순자와 한비자 계열의 법가사상이 혼합됐다. 황로학은 군주가 말을 아끼며 학을 강조한다. 말이 많을 경우 신하들에게 속내를 하며 육성을 했다. 유정관은 "사진 찍지마! 에이X...찌지마! 성질이 뻔해서 으...정말..."이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뒤늦게 사과했지만 과문은 가라앉지 않는다. 여당은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야당은 "텔런트 장관이 국회와 국민을 육보인 3류 저질 드라마 한편을 선보였다"며 자신의 사과장을 주장하고 있다.

공직에 오르기 전 드라마에서의 실수나 NG는 얼마든지 용서될 수 있다. 하지만 장관으로서의 말 실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칼로 벤 상처는 치료해서 나을 수 있지 만 말로 인한 상처는 사람의 마음을 멍들게 한다. 하물며 공직자·지도층의 말이 야 더 높은 신중을 요구하지 않겠는가.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시국(구독신청·배달안내)) | www.kwangju.co.kr

편집국내내	사회 2 부	2200-619	경영 1 부	2200-511

<tbl_r cells="5" ix="2" maxc